

# ‘13승 + 첫 홈런’ 류현진이 다했다



7이닝 3실점 퀄리티스타트·메이저리그 진출 첫 홈런 투·타 원맨쇼  
평균자책점 2.41 1위 수성...류 “홈런, 팀에 좋은 계기...중요한 순간이었다”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 등판에서 투타 원맨쇼를 펼치고 시즌 13승을 달성했다.  
류현진은 23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뽑아내며 3실점의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를 달성했다.  
안타 6개를 허용했고, 1회 솔로 홈런, 7회 투런 홈런을 맞아 실점했다.  
류현진은 0-1로 끌려가던 5회 말 선두 타자로 나와 콜로라도 우완 선발 투수 안토니오 센사텔라의 시속 151km 짜리 속구를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살짝 넘어가는 생애 첫 홈런으로 1-1 동점을 이뤘다.  
류현진이 득점의 물꼬를 트자 다저스 주포 코디 벨린저가 역전 홈런으로 화답했다. 류현진의 홈런 직후 안타 2개와 볼넷으로 이어진 무사 만루에서 등장한 벨린저는 우측 펜스를 넘기는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

류현진은 6-3으로 앞선 8회 말 케일럽 퍼거슨에게 배턴을 넘겼고, 팀이 7-4로 이기면서 8월 1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12승을 거둔 이래 6번째 도전 만에 승수를 추가한다.  
류현진은 1회 첫 타자 트레버 스토리를 풀 카운트에서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2번 타자 햄프슨에게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맞았다.  
“전직” 놀런 에러나도를 1루수 실책으로 내보내 위기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후속 두 타자를 범타로 잡고 1회를 마쳤다. 1회에만 공 25개를 던진 류현진은 2회부터 급격하게 투구 수를 줄여갔다. 2~3회 공 16개로 6명의 타자를 손쉽게 요격했다.  
6회 2사 2루 고비에서 에러나도를 다시 유격수 땅볼로 잡고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류현진은 7회 2사 1루에서 왼손 타자 샘 힐리어에게 홈런을 맞고 점수를 줬다.  
류현진은 자신의 첫 홈런에 대해 “배트에 맞았겠다는 생각만 했다”며 “낯 경기라서 넘어간 것 같다. 밤 경기였으면



류현진이 프로 첫 홈런을 친 뒤, 홈런 공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좋은 홈런이었다”라며 웃었다. 또 “내 홈런이 이번 경기에서 팀에 좋은 계기를 만든 것 같다. 홈런이 나온 뒤 팀이 대량 득점했다”며 “내게도 첫 홈런이다. 그 타석이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덧붙혔다.  
류현진은 홈런을 친 뒤 분업인 투구에 집중했고, 7이닝

을 채웠다.  
류현진은 “첫 홈런은 어쩔 수 없었지만, 두 번째 홈런은 투구가 아쉬웠다”며 “실투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도 7회까지 던져서 다행이다”라고 자신의 투구를 총평했다. /연합뉴스

## ‘키움 2위 싸움’ KIA에게 물어봐

이번주 키움·롯데·LG 잔여경기 관전 포인트

두산에 승률 0.001차 2위...오늘 경기 관전  
박찬호 도루 38개...2위 김하성과 6개 차  
LG에 올 시즌 5승10패...‘유종의 미’ 기대



KIA 타이거즈가 마지막 세 경기를 통해 아쉬웠던 2019시즌과 작별한다. 지난 3월 23일 LG 트윈스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렀던 KIA는 오는 28일 LG와 올 시즌 약속된 144번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KIA는 이에 앞서 24일 키움 히어로즈와 홈경기를 가진 뒤, 26일 올 시즌 마지막 원정 경기를 위해 부산으로 떠난다. 돌아보면 아쉬움만 가득한 시즌이었다.  
시즌 초반 믿었던 주축 타자들의 동반 부진 속에 성적이 추락했고 ‘우승 감독’ 김기태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다. 사령탑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소통과 리더십 부재로 모습을 잃었던 구단은 이렇다 할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다.

구단의 무책임 탓에 팀 운영 방향이 오락가락하면서 성적도 마레도 잡지 못한 채 시즌 마지막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KIA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팬들의 박수를 받아야 한다.  
24일 키움전은 이목을 끄는 경기다. 아직 두산 베어스와 키움의 2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경기 차 없이 두산이 키움에 승률 0.001차로 앞선 2위다. 키움에게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절박한 경기다.  
또 하나 ‘도루왕 싸움’도 걸려있다.  
박찬호는 23일 경기 전까지 38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2위 키움 김하성(32개)에 6걸음 앞서 있다. 박찬호는 이번 맞대결을 통해 도루왕을 확정하겠다는 각오다.  
KIA는 26일에는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우위를 이어간다. 올 시즌 승보다 패를 더 많이 쌓았지만 롯데와의 상대전적에서는 8승 7패로 앞서있다. KIA는 지난 11일 사직 원정에서 양현종의 86구 완봉승으로 4-0 승리를 거뒀다. 이는 올 시즌 사직에서 기록된 첫 승리였다.  
에이스를 앞세워 사직 6연패에서 탈출한 KIA가 사직 연승을 목표로 시즌 마지막 원정길에 오른다.  
그리고 KIA의 2019시즌은 LG로 시작해 LG로 끝난다. KIA는 LG와의 개막전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개



박찬호

터너가 5이닝 8실점(7자책)으로 못매를 맞으면서 KIA는 개막 2연전에서 모두 졌다. 최근 LG전 3연패 중인 KIA는 상대전적에서도 5승 10패로 뒤져있다. KIA가 LG를 상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팬들 앞에 기분 좋은 승리의 작별인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최종전은 팬과 함께~

28일 LG전 팬 사인회·신인선수 인터뷰 등

KIA타이거즈가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의 2019시즌 최종전을 맞아 팬 감사 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는 올 시즌 변함없는 사랑으로 KIA타이거즈를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전 사인회와 함께 이날 행사가 시작된다.  
팬 사인회는 양현종, 박민, 홍중표 등 신인 선수 11명이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인사한다.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터뷰 시간이 마련된다.  
신인 선수 부모를 초청해 시구·시포 행사도 연다.  
2020년 신인 부모들이 시구자로 나서고, 신인 선수들은 부모님의 공을 받는 시포자로 행사에 참가한다.  
경기 도중에는 올 시즌을 돌아보는 영상이 선보이고, 선수들의 감사 인사 영상도 전광판에 송출된다. 또한 팬과 함께 하는 플래시 응원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밤을 수놓게 된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선수단 전체가 그라운드로 나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큰절을 올리며 올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